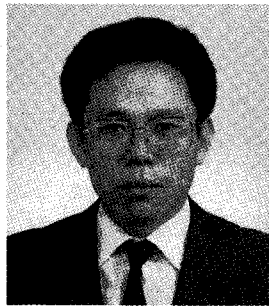


# 선진낙농국 캐나다를 다녀와서



임 병 순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발부 차장

## 종우(Holstein) 검수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동안 WTO 체제하의 최소시장 접근 물량(MMA)의 일부인 약 100여두의 도입 종우 검수를 위하여 캐나다의 남부 및 동부지역(미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농가들을 돌아다니며, 약 200여개의 농가를 방문하였다.

온타리오주와 퀘벡, 뉴브런스 위주 및 프린스 에드워드 섬 지방의 농가들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하루의 검수농가수 및 두수는 약 10여호 내외 및 10여두에 불과하였다.

농가와 농가사이의 이동시간이 자동차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2~3시간 정도의 긴 거리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강행군이였다.

이른 새벽부터 밤 9시경까지 1일 약 15시간 정도의 힘겨운 검수일정이었다고 말 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차로 10여시간 달려도 산과 끝이

안보이는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캐나다 남 동부 지역이었다. 특히, 온타리오주 남부지역의 런던(London) 지역은 말 그대로 평야, 그것뿐이었으며, 토론토(Toronto)의 외곽 낙농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검수일정에 따라 동부지역인 퀘벡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부터 조그마한 동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산이라고 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산이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훌륭한 밭으로 손색이 없는 약간 경사진 그런 산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산에 나무를 심고 잘 가꿔 훌륭한 산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마침 때가 가을인 지라 그런 산마다, 길가마다 마을마다 캐나다 국기에서 보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빼곡하였다. 캐나다인들은 그 단풍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단풍(Maple)을 주제로 한 식음료는 물론 목장이름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캐나다인들은 자연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보아 최대한 자연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와 건물을 건설한 것이었다.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하였다.

## 남동부지역의 낙농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천혜의 조건속에서 낙농을 영위하는 캐나다 남동부지역의 실태는 커다란 우사의 2층창고에 빼곡한 건조등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에 부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호당 사육두수는 물론이고, 초지나 사료포, 농기구 등 우리나라의 낙농과는 너무도 다른 별천지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여건속의 낙농가 전부가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납유량의 쿼터제로 인한 제약 문제, 가족노동 중심의 낙농이기에 외부와의 접촉은 물론 바깥세상 구경이 정말 힘든 점 등이 그들한테는 불평이었다.

일례로 캐나다 동부에 사는 사람이 외국나들이는 커녕 캐나다 서부지역에 기본일이 없고 심지어 자기 목장 이외의 곳은 나가 본 일 조차 없다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물론 이말도 땅이 워낙 넓기에 이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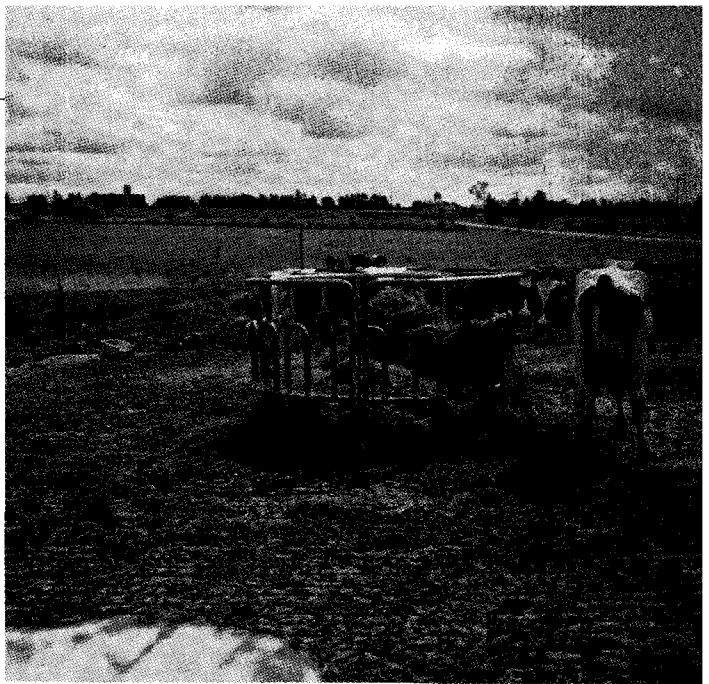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낙농인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낙농가는 해외여행도 경험했을 것이고, 바깥나들이 또한 캐나다 낙농가들 보다는 많으리라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낙농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았다.

한번쯤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보잘것 없이 좁으며 쓸모없는 땅이란 것을 다 실감 했으리라 본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몇백배가 된다고 하는데 인구는 2,8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짚어보면, 이렇듯 열악한 조건의 우리나라의 현재가 어떤가?

무역규모에서도 세계 10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세계각지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위치로 속속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낙농



캐나다의 낙농현장.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평야가 부럽다.

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미국, 호주 및 일본등 천혜의 조건속에서 낙농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멀지 않다고 본다.

왜? 한국인들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슬기가 있으며, 저력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슬기와 저력만 믿고 앉아 있어도 될 것인가? 아니다, 그들이 한 시간 일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 반시간, 한시간씩 더 일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한번의 실수를 그저 실수로만 넘기지 말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농가들은 보다 열심히 일하며,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며 업계 및 관련 단체들은 농가를 위해 힘이 되어야 하겠고, 학교에서는 제2의 후진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농가를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한다.

낙농선진국들은 과거에 이렇게 모두가 뚝뚝뚝 열심히 일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들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낙농가중에서도 현재 젓소 산유능력 검정을 받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은 이들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고 있으며, 또한 앞서 나가는 농가들도 상당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은 악조건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 했으며, 젓소의 육종, 유



캐나다의 대두밭-끝이 없는 발엔 대두 및 알팔파 등이 자라고 있었다.

전적인 면의 개량쪽에서 남다른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WTO 체제하에서의 낙농은 과거와 같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으리라 본다. 이제부터 허리띠를 바짝 더 졸라매는 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많은 노력과 함께 연구하며 보다 질 좋은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시유의 개방은 물론 유제품 개방등이 파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거치리라 생각된다.

일례로, 호주에서 오늘 생산한 원유가 다음날 새벽 싱가포르의 수퍼마켓에서 시유로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결코 남의 일이나 얘기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직감되며 걱정된다.

### 젖소의 대북정책

우리나라의 낙농역사(약 30년)가 말해주듯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젖소가 불과 10여년 전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서 수입되었었다. 그러던 중 1984년부터 젖소의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WTO 체제하에서 종우 수입의 원년을 맞은 한해(1995년)가 되었다. 물론 이들 낙농선진국의 젖소가 우리나라 젖소보다 좋아서 우리가 농가수입을 늘리고 유전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은 하고 있으나, 우리도 노력하면 젖소 송아지를 외국으로 수출 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현 정부의 정책중 대북정책(중국, 러시아등)은 상당히 성공한 정책으로 본인은 보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1차 산업쪽도 눈을 돌려 추진한다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낙농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쯤으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이 들한테 우리나라 젖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개하면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날도 멀지만은 않다고 보아진다.

이를 위해선 관련단체나 학계, 정부에서도 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으며, 우리나라 낙농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등에 비하여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가 적고,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한 점 등을 들어 이제는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결 론

지리적 여건, 부존자원의 다소등 우리나라 낙농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낙농산업 앞에선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못했고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으며, 앞으로 또한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한다. 살아남기 위해선 열심에 열심을, 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시야를 밖으로 돌릴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백년 우물안의 개구리로 있을 수 만은 없지 않은가? 앞에서 언급했드시 최고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여 고품우유 사건으로 실추된 현재의 우리 낙농산업을 다시 살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때다. 그리고 유가공업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낙농가를 보호하며 같이 살아 갈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유의 장점을 들어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내 우유는 가장 좋고 남의 우유는 나쁜 우유라는 식의 광고는 결국은 다 죽고 만다는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다.

무한경쟁시대니 WTO체제니 하는 말들이 우리 앞에선 적이 될 수 없도록 낙농가는 물론 관련업계, 학계 및 정부 등이 한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전진 할 때 승리는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 손을 높이 치켜 세워 줄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남을 죽여야 내가 살던 시대는 지나갔다. 남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